

해방 직후의 제주문학

—『신생(新生)』을 중심으로—

김 동 윤*

차 례

1. 머리말
2. 해방 직후의 제주 사회와 문학
3. 『신생』의 성격
4. 『신생』에 실린 문학작품들
5. 『신생』의 문학사적 의의
6. 맺음말

1. 머리말

요마적에 필자는 선행연구자들의 견해에 일부 기대면서 지역문학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몇 가지 근거를 두어 역설한 바 있다. 첫째, 원래 인간의 삶 자체가 구체적인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인간의 삶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은 자연히 지역문학일 수밖에 없다. 둘째, 지역문학 연구를 통해 민족문학(한국문학) 연구에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그 문학사도 재정립할 수 있다. 셋째, 지역민들의 정체성 함양을 통한 지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역발전 도모를 위해 필요하다. 넷째, 현실적으로 한국문학을 더욱 다양화하고 그 범주를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었다.¹⁾ 아울러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의 극복 방안의 하나로 지역문학사 서술의 필요성도 제기한 바 있다.²⁾ 이 글은 이러한 문제 제기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하나다.

20세기 제주문학사는 ① 일제강점기 신지식인들의 활동과 제주문학의 태동(1900~1945), ② 전란의 격변과 동인 중심의 제주문학의 형성(1945~1969), ③ 산업화의 진전과 제주문학의 사회적 확대(1970~1999)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³⁾ 해방 직후는 두 번째 시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해방 직후의 제주도는 '4·3'이라는 전대미문의 비극이 있었던 시기다.⁴⁾ 4·3은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난을 주면서 제주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놓았다. 그렇다면 그 즈음 제주의 문학은 어떤 양상을 띠고 있었을까? 주로 어떤 이들에 의해 어떤 활동이 전개되었을까? 그리고 그것은 제주문학의 흐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제주도 최초의 잡지 『신생(新生)』은 바로 이런 의문을 풀어줄 요긴한 열쇠다. 비록 『신생』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단명한 잡지가 되고 말았지만, 해방 직후 제주문학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생』에 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피상적이거나 단편적인 수준에서만 이루어졌으며, 잘못 알려

-
- 1) 김동윤, 「제주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탐라문화』 제20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9), 48쪽.
 - 2) 김동윤, 「20세기 제주문학사 서설」, 『영주어문』 제3집(영주어문학회, 2001), 197~198쪽. 양영길도 “중앙문단 중심의 문학사 서술에 대한 극복은 여러 지역문학사 서술을 통하여 각 지역의 정서를 비롯한 문학사의 장기 지속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한국문학사 인식, 어떻게 할 것인가』(푸른사상, 2001), 249쪽)고 주장했다.
 - 3) 필자가 기존 논의를 참조하여 역사적인 맥락과 문학적 현상의 특징들을 동시에 반영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구분해 본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20세기 제주문학사 서설」 참조.
 - 4) 재산무장대(在山武裝隊)들이 봉기한 것은 1948년 4월 3일이지만, 그 사건은 이미 해방과 동시에 시작되었고 1947년 3·1사건으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진 부분도 없지 않다.

이 글은 『신생』을 통해서 해방 직후 제주문학의 양상과 의미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해방 직후의 제주문학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신생』의 성격과 그 의미에 대해 밝혀보고자 한다.

2. 해방 직후의 제주 사회와 문학

지금까지 연구된 바⁵⁾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의 제주문학은 몇몇 문인들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제주근대문학 태동기의 문학 주체들은 신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서울과 일본 등 외지에서 제각기 활동하였기에 어떤 구심점이 있었거나 서로 연계되어 활동했던 것이 아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들을 보면, 시가에 김문준·김명식·김지원·강관순·김이옥, 소설에 이시형·이영복(이영구)·오본독언(吳本篤彦), 평론에 김명식, 문예운동에 고경흠 등이 있다. 사회활동(운동)과 겸하여(혹은 그 수단의 하나로) 문학작품을 쓴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문학 활동에만 전념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 문인 중 일부는 해방 전에 세상을 떠났고, 일부는 해방 이후 행적이 묘연하며, 일부는 해방을 전후하여 귀향했다.

귀향한 일부 문인들은 문학 활동을 위한 의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8·15 해방은 구심점이 없이 외지에서 활동했던 제주 출신 지식인들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이다. 그 때 인쇄물로서의 가장 뚜렷한 성과물이 『신생』인 셈인데, 여기에 김이옥의 시와 이영복의 소설 등이 실리는 등 절반이 넘는 지면이 문학 관련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⁶⁾

5) 김영화의 『변방인의 세계—제주문학론』(제주대학교출판부, 1998; 개정증보판 2000)이 제주문학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서다.

6) 『신생』 관련 부분은 다음 장부터 상세히 언급함.

해방 직후 제주도에서는 『신생』 중심의 그것 이외에도 나름대로 문학 활동이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인민위원회와 청년동맹에 문예부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은 도내 각지에서 문학 관련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1946년 5월 애월면 인민위원회와 청년동맹에서 공동으로 발행한 『신광(新光)』 창간호를 보면 '행복을 얻은 범생(凡生)' 혹은 'K생(生)'의 시 「자유(自由)」와 「한라산(漢拏山)과 해녀(海女)」가 실려 있다. 또한 이 책 말미에는 기고를 환영한다며 '문학 작품'도 투고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당시 제주도 지역에서 간행된 일간지인 『제주신보』⁷⁾에는 문학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수록되어 있지 않다. '서운예술연구회(曙雲藝術研究會)'라는 단체가 있었으나, 음악·연극 등을 위주로 활동하고 문학 관련 활동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⁸⁾ 다만, 경찰기관지인 『경성(警聲)』 창간에 관한 기사⁹⁾에서, 신조선(新朝鮮) 경찰의 제반 연찬(研鑽)과 경찰관의 정조 함양 및 '문학 소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창간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해방직후에 도내에서도 문학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미루어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경성』에는 경찰 홍보 기사 이외에 수필 정도가 실렸을 뿐이다.¹⁰⁾

제주로 귀향하지 않고 문학 활동을 한 문인도 있는데, 강금중이 그 대표적인 경우다. 강금중은 제주시 삼양 출신으로 화북초등학교를 나와 10대 후반이던 1930년대 중반 일본으로 건너가서 오사카·사할린 등지에서 살다가 해방되던 해에 귀국해서 충청남도 조치원에 정착한 작가다. 그가 『자유문학』을 통해 등단 절차를 밟은 것은 1963년이지만 그 이전에도 꾸준히 창작활동을 하면서 작품집을 엮어내었다. 해방 직후에 그는 장편 『해방의 날』(1946)과 창작집 『어린 천사』(1948)를 펴냈다.¹¹⁾ 『해방

7) 제주4·3연구소가 제작한 『제주신보』 영인본에서 확인했음.

8) 『제주신보』 1947년 1월 12일치 2면 하단 광고 참조.

9) 『제주신보』 1947년 1월 16일치 2면.

10) 이영복 증언. 이문교, 『제주언론사』(나남출판, 1991), 145~146쪽에는 '경찰 기관지 『경성』에 관한 사항들이 소개되어 있다.

의 날』은 자전적 장편소설로,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일본으로 건너가 일하면서 공부하는 '순일'의 가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어린 천사』에는 「오형(吳兄)의 영전(靈前)에」·「홀러은 농민(農民)」 등 9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 표제작 「어린 천사」는 자전적 요소가 강하다는 점에서 『해방의 날』과 유사한 면이 있다. 일제강점기 제일 제주인들의 삶의 양상을 엿볼 수 있는 소설들이다.

3. 『신생』의 성격

『신생(新生)』은 월간 혹은 격월간을 표방했던 종합지였지만, 사실상 창간호가 중간호로 되어 버린 잡지였다. 잡지 간행의 주역이었던 이영복이 소장하고 있는데, 이 책에 나온 문학작품 중 상당수는 『제주문학—1900~1949』(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5)에 재수록되었다. 김영화는 「제주문학 80년」에서 『신생』에 관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소개한 바 있다.

1946년 1월 20일 제주에서 처음으로 동인지적 성격의 잡지 『신생(新生)』이 나왔다. 이 잡지는 고석지, 이일선, 김종륜 등의 논설과 상당수의 문학 작품도 실었다.

시에 최길두(최일, KT)의 「폐허」·「애빈의 농자」·「시인향」, 이영복(이영구, YKR)의 「해루」·「우울」, 김병현의 「바다의 사색」 등이 실려 있다. 그리고 미간행 시집 『흐르는 정서』(1944)를 남긴 김이옥의 「노스탈자」 등의 시도 발표되었다. 소설에는 이영복의 「야로」 한 편이 실려 있다.

11) 이밖에 『난류』(1956), 『미움의 세월』(1966), 『먼 여로』(1972) 등의 창작집이 있다. 강금종의 소설은 크게 세 가지 경향으로 나뉘 볼 수 있다. 첫째는 일제 말기를 배경으로 민족이 당했던 아픔을 그린 소설이고, 둘째는 농촌과 농민들의 세계를 그린 농촌소설이며, 셋째는 등장인물들의 반항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현황을 다룬 소설이다. 강금종의 작품세계에 대해서는 김영화, 「강금종론」, 앞의 책, 241~250쪽을 참조할 것.

이들은 해방 후 혼란기에 차분하게 작품을 쓰기도 어려웠고, 작품을 써도 발표할 기회가 없었다. 종이가 귀해서 동인지나 잡지를 낼 수 없어서 발표하지 못한 작품들도 있었다고 한다. 이어서 4·3 사건이 일어나자,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문학 활동은 중단되고 말았다.¹²⁾

논설과 더불어 문학 작품이 많이 실렸기 때문에 '동인지적 성격의 잡지'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글의 성격이 개괄적인 흐름만 살피는 것이어서, 일부 문학 작품들의 제목만 소개하고 있는 데서 그치고 있다. 작품의 내용이나 성격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단지 김이옥의 유고작품들인 경우 「일제시대의 제주문학」이라는 별도의 글에서 고찰하고 있다. 이문교는 제주언론사를 다루는 관점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신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주 최초의 잡지는 『**新生**』으로 1945년 11월 창간되고 이듬해 1월에 2호를 발행하여 중단된 단명의 잡지다.

일본 중앙대 졸업 후 귀국해 있던 高石志(본명:日昊)를 발행인으로 한 이 잡지는 일본에서 大日本文學者會 회원으로 활동했던 李永九(본명:永福)와 교사 출신인 崔吉斗가 주축이 되어 창간되었다. 인쇄는 濟州新報 창간호를 인쇄한 岡本 인쇄소에서 했고, 인쇄인은 姜成秋로 岡本 인쇄소 대표 姜成彦의 동생이다. 잡지 발행의 준비는 해방 직후부터 하였으나 용지난과 인쇄 사정이 어려워 2개월만에 발행되었다.

『**新生**』의 규모는 국판으로 창간호에는 문예 평론 정치 사회 종교물을 주요 내용으로 80페이지를 종합 편집했다. 특히 제주도에 주둔한 미군정장관 스타우드 소장의 창간 축사도 수록하였다. 제2호는 64면으로 편집되어 조국 건설과 민족 부활을 내세운 계몽적 사상과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정치 성향을 담고 있다.(…)

제2호의 주요 내용은 논단으로 高石志의 '정신 혁명', 李一鮮의 '종교와 사회 사조', 金琮崙의 '道義의 옹호'와 '미국헌법 해설', 제주도 미군정장관 스타우드 소장의 연두 소감 등이 수록되어 있다. 문예란에는 崔一(본명:吉斗)의 詩「廢墟」, 金秉憲의 「바다의 思索」, 李永九의 「追憶」 등 10여 편의 시와 산문 등을 실고 있다. 특히 제주 출신 향토시인인 金二玉을 추모하는 난

을 5면에 걸쳐 편집하고 故人の 작품으로 「노스타루자」, 「生活」, 「墓標」 등을 소개하고 있다.¹³⁾

인용문에서 보면 『신생』이 제주도 최초의 잡지라는 점, 고석지(고일호)를 발행인으로 하고 이영복과 최길두가 주축이 되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몇 가지 오류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가장 큰 오류는 창간호와 제2호를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용문에서는 '창간호에 문예 평론 정치 사회 종교물을 주요 내용으로 80페이지를 종합 편집했'고 '제2호는 64면으로 편집되어' 논단과 문예물을 다루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언급하는 두 책은 같은 것이다. 이러한 오해는 『신생』 목차에 이 책이 제2권 제1호로 명기된 것과 더불어 이영복이 쓴 「나의 재직 시절」이라는 글의 불명확한 진술에서 비롯된다.

45년 8·15. 드디어 조국광복을 맞은 나는 중단된 문학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9월 초순 경 제주시로 달려와 전부터 사귀어오던 崔吉斗 씨를 만나 작고한 高石志(日晷) 씨와 함께 新生誌 발행에 착수하였다. 新生誌는 문예 평론 정치 사회 종교물을 내용으로 한 국판 80페이지 짜리 종합잡지로 창간호에는 특히 본도에 주둔한 미군정장관의 창간사도 수록하였다.¹⁴⁾

위에서 말하고 있는 창간호는 『신생』 제2권 제1호를 말하는 것이다. 위의 글에서 이영복이 그 경위를 소상히 밝히지 않은 가운데 '80페이지 짜리'라고 쓴 것을 잘못 이해함에 따라 다른 책처럼 인식되고 만 것으로 보인다.¹⁵⁾ 이영복의 증언에 따르면, 1945년에 발간된 창간호라고 알려진

13) 이문교, 앞의 책, 141쪽.

14) 이영복, 「나의 재직 시절」, 『제주신문』(1979.8.20.).

15) 『신생』은 그 내용이 62쪽, 광고와 표지가 10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쪽수는 내용에만 62쪽까지 명기되어 있다. 이문교가 '제2호는 64면으로 편집되어'라고 한 것은 내용 맨 끝에 명기된 62쪽에다가 그 뒤의 광고 지면을 쪽수에 포함시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영복은 '80페이지 짜리'라는 자신의 언급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필자에게 밝혔다.

것은 10월 경 '평론'이라는 제호로 나왔고 A3용지를 세 번 접어서 펼쳐가며 볼 수 있도록 인쇄하여 잡지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 용지를 소유하고 있던 고석지가 잡지 제작에 시일이 걸리자 독자적으로 제작했다는 것이다. 그 내용도 미국헌법해설만을 게재하였다.¹⁶⁾ 『신생』에 「미국헌법해설」 속편이 실려 있는 것을 보면, 이영복의 증언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현재 이영복이 소장하고 있는 『신생』이 창간호이자 중간호인 셈이다. 『신생』의 목차와 글쓴이는 다음과 같다.

「권두언(卷頭言)」

「신춘(新春)의 마음」

「신년(新年)을 맞이하여」—신생사 일동

「근하신복(謹賀新福)」—원문상

〈시〉 「폐허(廢墟)」, 「애빈(哀貧)의 농자(農者)」—최일(최길두)

「연두 소감(年頭所感)」—제주도 미군정장관 스타우트 소좌

「연두(年頭)의 노래」—신생사

〈논설〉 「정신혁명(精神革命)」—고석지(고일호)

「일월(一月) 오일(五日) 기억(記憶)의 날」

「신탁관리(信託管理) 절대(絶對) 반대(反對)」

「미국헌법 해설(美國憲法解說) 속(續)」—고석지

「종교(宗教)와 사회사조(社會思潮)」—이일선

〈소설〉 「야로(夜路)」—이영구(이영복)

「진리(眞理)와 인생(人生)」—최일(최길두)

「도의(道義)의 옹호(擁護)」—김중륜

〈산문시〉 「파선(破船)」—김영

「시인향」—KT(최길두)

〈시〉 「바다의 사색(思索)」—김병현

「추억(追憶)」, 「회루(梅淚)」, 「우울(憂鬱)」—이영구

「전원(田園)에서」—김필규

「만가(輓歌)」—김덕양

16) 고석지가 「미국헌법해설」을 쓴 것은 그가 일본 중앙대 법과에서 공부한 법학도였음과 관련이 있다. 이영복에 따르면, 고석지가 『평론』과 『신생』에 연재한 글은 일본서적의 내용을 한글로 옮긴 것이라고 한다.

「향토시인(鄕土詩人) 고(故) 김이옥 군(金二玉君)을 추도(追悼)하고」—편집부
 〈학생논단〉 「농촌 개척(農村開拓)의 새 각오(覺悟)를 가져라」—김기환
 「현상 모집(懸賞募集)」
 「편집 소식(編輯消息)」¹⁷⁾

위의 목차에서 보듯이 『신생』은 시사적인 것(논설, 논단 등), 문학적인 것(시, 소설 등) 그리고 기타(알림, 광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논설 등 문학외적인 것을 중심으로 『신생』의 성격을 살펴보기로 한다.

시사적인 내용들은 새 조국 건설과 완전독립 쟁취에 대한 기대와 과제 등이 주를 이룬다. 변방인 제주도에서도 해방으로 인한 희망과 의욕이 충만했음이 파악된다.

우선 신생사 명의 또는 무기명의 기사를 보면, 「권두언」¹⁸⁾에서는 “삼천만 조선민족은 전지전능을 집결하고 세기적 사명의 위대한 신국가 건설에 활약한다”고 전제하고 “이 민족 부활의 역사, 국가건설의 역사, 이것은 우리들의 위대한 새 기록”(1쪽)임을 역설하고 있다. 「신춘의 마음」에서는 ‘세종대왕 한글 오백주년의 신춘’을 강조하면서 “자주독립을 속히 완성하기 위하여 금년은 작년보다 더 일층 활약하여야 한다”(2쪽)고 강조하고 있으며, 「신년을 맞이하여」에서도 “현재의 우리들의 중대한 책무를 자각하여 분기(奮起)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통절하게 느끼는 것은 민족통일”이라며 “조급히 우리 민족통일의 완성을 기하여 새 정신 새 마음으로 무엇보다 더 힘있는 씩씩한 걸음으로 보조를 맞추어 나가자”(4쪽)고 주장한다.

발행인인 고석지의 「정신혁명」에서도 신국가 건설과 자주독립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친일모리배와 기회주의자들의 행각에 대한

17) 명백한 오자·탈자는 바로잡았고, 현대어로 고치기도 하였다. 이하 『신생』 인용 문들도 마찬가지로 처리하였다.

18) 창간사가 따로 없으니 「권두언」이 창간사와 다름없겠으나, 「권두언」에는 창간 취지에 관한 특별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질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고석지는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주아로 침식을 불고(不顧)하고 열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일면에 음푹하게 돈에 욕심을 내어 돈에 눈이 어두워 나라도 민족도 생각하지 못하는 악상간상(惡商奸商)이 우글우글 목포로 일본으로 그 돈에 생명을 걸어놓고 출입한다.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하니 누가 그 사람을 불쌍히 생각할까. 그놈 잘 죽었다고 모욕을 한다. 또 그뿐일까. 다시 있다. 일본 놈 일본 병정을 사귀어서 술장사 육(肉)장사 온갖 장사를 다하여 더러운 야심으로 오고가는 그 일본 놈 일본 병정들에게 술과 색시를 주고 사탕발림하다가 패전의 날 그가 가졌던 적산인 여러 가지 물건에 눈이 어두워 날마다 도둑질과 장사로 남보다 조금이라도 그 물건을 많이 차지하려고 욕심을 내어 서로 다투다가 미군정이 눈앞에 나타나서 외국사람에게 창피를 당하고 나라와 민족의 이름을 더럽게 하고 우리들의 감정을 투쟁으로 격화시킨다”(7쪽)고 흥분하고 있다. 고석지는 지도층들의 경우에도 말로는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이기심과 허튼 명예심에서 나오는 야망적(野望的) 행동이 아니냐고 꼬집는다.

원문상의 「근하신복」에서는 “과거 36년간은 참으로 파란곡절(波瀾曲折)이 적지 않았었다. 이 파란곡절이 많은 과거를 토대토(土臺土)로 삼아 해방 2년의 난관을 돌파하여야 할 것이다.”라면서 “오, 동지들아. 오, 씩씩한 형제들아. 새 해방 새 건설을 어깨 끼고 나아가자. 주먹 쥐고 나아가자.”(5쪽)고 역설하고 있다. 이영복의 증언에 따르면, 원문상은 대처승으로 고석지와 친분이 있었다고 한다.

이일선이 쓴 「종교와 사회사조」는 종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글이다. 글의 말미에 ‘속(續)’이라고 명기된 것으로 보아 연재하기로 되었던 미완의 글이다. 이일선은 이 글에서 종교가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종교인들이 사리사욕을 버려야 할 것이며, 현대의 종교는 과학적 교리를 통해 민중들에게 파고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일선은 1947년 좌파세력 연합체인 제주도 민주주의 민족전선 공동의장을 역임한 인물로,¹⁹⁾ 4·3 때 희생되었다.

김중륵의 「도의의 옹호」는 민족자결을 강조한 글이다. “시평 논설 「도의의 옹호」는 삼천만 조선민족의 새 각오와 결의를 세기의 요구 그대로 쓰고 있으니 정독간명(精讀肝銘)하여야 될 것”(62쪽)이라고 「편집소식」에서 밝힌 것을 보면, 비중 있는 글이라고 하겠다. 카이로회담과 포츠담 선언에서 조선의 독립을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 신탁통치를 결정한 것이야말로 약육강식의 논리 밑에서의 위선적인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우리 땅에 부정이 강권을 발동하고 여하한 강제를 취한다면 우리 민족은 모조리 하늘의 심판 밑에 죽을 하나로써 우리 민족의 도의와 영광을 사수할 뿐이며 오직 민족자결이란 최후 유일한 혈도(血道)밖에 없을 것”(44쪽)이라고 강조하는데, 글의 말미에 서기 1946년 1월 5일 ‘신탁반대 도민 시위하는 날’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신탁통치와 관련하여 이 글에는 짝막한 두 건의 기사가 더 게재되어 있다. 「신탁관리 절대 반대」와 「일월 오일 기억의 날」이 그것인데, 모두 무기명 기사이다.²⁰⁾ 특히 「일월 오일 기억의 날」에 따르면 1946년 1월 5일에 조천면에서 신탁 관리 반대 시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논단인 「농촌 개척의 새 각오를 가져라」는 당시 제주농업학교 4학년이던 김기환의 글로서, 과학 영농을 바탕으로 신국가 건설에 주력하고자 강조한다. 학생들에게 “조선사람의 길을 밟고 피를 흘리자. 방울 같은 땀을 흘리자. 그리하여 과학적 농업기술을 발달시키고 과학의 새 나라를 세우자. 자유 해방의 오늘을 맞이하여 피가 있고 눈물이 있거든 이 황무(荒蕪)한 조선의 농촌을 개척하라.”고 주장한다.

미군정장관 스타우트 소좌의 「연두 소감」은 편집진이 군정당국에 청탁하여 실었다고 한다. 스타우트는 이 글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강조하는 가운데 “조선이 금년 중에 세계의 제국(諸國)에 오(伍)하여 정당한

19) 『제주신보』 1947년 2월 26일치에는 2월 23일 이일선이 안세훈, 현경호와 함께 제주도 민전 의장단으로 추대되었다고 보도되었다.

20) 이 두 편의 글은 최길두가 쓴 것이라고 한다(이영복 증언).

위치를 획득할 것을 성실히 희망”(12쪽)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상논문모집」 안내에서도 주목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현상논문의 과제(주제)는 ‘농촌건설의 구체적 방안’과 ‘실업자 대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제주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현안이 무엇이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농촌이 극도로 피폐해졌고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었던 상황들이 결국에는 4·3 발발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원고 마감은 2월 10일까지이며 『신생』 3월호 지상에 발표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편집진에서는 월간지 혹은 격월간지 형식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편집 소식」에 따르면 “창간 제2년을 맞이하는 이 신년호가 대개 어떻게 편집이 되었는가. 활자가 아직도 구비되지 못하고 공장도 정비되지 못하여 지장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번도 예정대로 편집이 되지 못하였다. 시사 경제 교육 역사 한글강습이 떨어진 것은 큰 유감이다.”(62쪽)라고 언급하고 있다. 활자마저 제대로 구비되지 못한 열악한 인쇄 사정이 『신생』지가 단명할 수밖에 없었던 주된 이유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록된 글들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 역사, 한글강습 등을 기획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다.

이 잡지에는 광고도 수십 건 실렸는데, 이를 통해 당시 제주의 문화적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광고에 나온 것들을 보면, 문화·예술 단체로는 ‘신생연예단(新生演藝團)’, ‘문화협회(文化協會)’, ‘탐라예술동지회(耽羅藝術同志會)’, ‘음악동지회(音樂同志會)’ 등이 있다. 이러한 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그다지 활발한 사업을 벌인 것 같지는 않다. 다만 해방 직후에 뜻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주 지역에서도 나름대로의 문예 활동들이 준비되고 있었음은 분명하며, 이 점은 의미 있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지역신문사로는 ‘제주신문사’가 있으며, 중앙 및 다른 지역 일간지 지국으로는 서울신문 제주지국, 조선일보 제주지국, 전남일보 제주지국이 있다.

4. 『신생』에 실린 문학작품들

『신생』에 게재된 문학작품으로는 김이옥, 최길두, 이영구의 작품들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최길두와 이영구는 해방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다가 『신생』 발간의 주역이 되었고, 김이옥은 최길두와 교류가 있었던 인물이다.

「향토시인 김이옥 군을 추모하여」에는 김이옥의 유고시 「노스텔지어」, 「생활」의 일부와 「묘표(墓標)」 전문이 소개되고 있다. 김이옥(1918~1945)은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소년시절부터 일본에 드나들면서 일본의 공장에서 노동을 했다. 1944년 귀향했을 때는 ‘호르는 정서’라는 제목으로 시집 간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나온 시 47편을 최길두가 노트에 옮겨 적게 된다. 김이옥이 지니고 있던 작품들은 다음해 일본에서 화재로 소실되자, 최길두는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작품 중 3편을 『신생』에 소개한다.²¹⁾ 다음은 「노스텔지어」이다.

나의 노스텔지어는
 물레방아 도는 정서에 살아있지만
 보리 갈고,
 조밥 먹고,
 고구마 먹어 방귀 끼는 사람들이 사는
 우둔한 섬.

산호가 피는 바다에
 진주가 구르는 듯한 물결은
 남국의 옷을 걸치고 있지만
 돌풍(突風)에

21) 「편집소식」에서는 “우리 고향에서 나온 시인 고 김이옥 군의 시집 『호르는 정서』의 문헌을 이 『신생』 지면을 통하여 소개하게 된 것은 펴이나 즐겁다.”(62쪽)고 밝히고 있다.

들맹이가 춤추는 들판은
꿈의 백골이나.

(중략)

나의 노스텔지어는
해바라기의 정열과 장미의 향기 속에 살아 있지만
개똥이 굴러다니는
자갈길을
도둑처럼 맨발에다 걷는
노인들이 있는
불쌍한 섬.

때묻은 섬 색시의 땅은 머리에
소를 모는 목동들의 슬픈 노래.
남국의 네온은 빛나고 있지만
피로한 눈동자에 등불조차 없어
무거운 짐을 지고 숨차게 걷는 것은
네온의 눈물인가.

아아

나의 노스텔지어여.²²⁾

일본에서 어렵게 삶을 영위하고 있던 시인의 향수가 짙게 배어 있는 가운데 일제의 착취가 극심했던 시기의 제주도의 자연과 제주사람의 생활상이 형상화되고 있다. 이 작품에 대해 최길두는 “그가 얼마나 절실한 향토시인(鄕土詩人)이었던가를 묵피(默避)할 수도 없는 것”(55쪽)이라

22) 『신생』 56쪽에 실린 최길두의 번역도 어색한 곳이 있고, 『제주문학—1900~1949』 59~60쪽에 실린 김난희의 번역도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두 번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다시 의역한 것으로 보이는 『변방인의 세계—제주문학론』 95~96쪽에 나온 김영화의 번역을 일부 단어만 고쳐 인용했다.

면서 “사실 군(君)은 이와도 같이 고향을 그리었기 때문에 고향을 잃었고 고향을 잃었기 때문에 그의 시가 항상 서정적인지도 모르나, 하여튼 군의 담백(淡白)한 표현 그 독특한 예술적 수법이 기묘하니 실로 감탄 않을 수 없”(56쪽)다고 언급했다.

김이옥의 문학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점이 많다. 누이동생(김소우)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시보다는 소설을 더 많이 썼다고 하며, 일본에서 입상한 경력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문학은 친구 최길두가 소장하고 있던 일어시(『신생』에 소개된 시 포함)들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의 문단 경력 등을 찾아내는 것도 과제인 셈이다. 『문학과비평』 1990년 가을호에 수록된 「일본어로 표기된 한국인 작품 목록」에는 김이옥의 「夜曲」과 「悲しき人」(1940년 『日本詩壇』 발표)이 있는데,²³⁾ 이 김이옥이 제주도 출신 김이옥과 동일인물인지의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최길두(1917~)는 『신생』 간행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다. 최길두는 『신생』에 「패허」, 「애빈의 농자」, 「시인향」 등 3편의 시를 실었고, 「향토시인 김이옥 군을 추도하여」라는 글도 썼다.²⁴⁾ 최길두는 1947년의 3·1 사건에 연루되어 포고령 위반죄로 5000원의 벌금형을 구형받기도 하며,²⁵⁾ 4·3이 발발한 후인 1948년 11월 제주농업학교에 감금되었다가 제주도청 상공과장 이인구의 도움으로 풀려나 죽음을 면한다.²⁶⁾ 노년이 되어 시집 『무명토(無明土)』(금오, 1989), 『이단(異端)의 요화(妖花)』(국학자료원, 1994)와 장편소설 『해산맥(海山脈)』(금오, 1993) 등을 펴냈다.

23) 호테이 토시히로(布袋敏博)에 따르면, 『문학과비평』 1990년 가을호~1991년 여름호에 수록된 「일본어로 표기된 한국인 작품 목록(1)~(3)」은 大村益夫·任展憲 編著, 『朝鮮文學關係日本語文獻目録』(東京:ブリソトピアネ, 1984)을 “장르별로 나눠 저자의 승낙 없이 무단 게재한 것으로써 원저의 오식까지 그대로 옮긴 것이다. 호테이 토시히로, 「일제말기 일본어 소설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6), 11쪽.

24) 목차에 최일(崔一)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진리와 인생」은 경구(警句)들을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

25) 『제주신보』 1947년 4월 28일치.

季候鳥도 떠나고—
이제는 草原에 香氣도 없다

傳說이 곱핀 廢墟의 古城
슬픈 오……祖國의 永遠한 歷路를 지킨 여기에도
'론 사무' 한 秋香은 차졌다……

—氣流와 외로운 갈대 고개……
—荒漠한 城壁 野菊의 꽃……
연지한 藜懸님이 가을을 떨치고 捕食하는 少羊 우를 그도 秋를 운다

廢墟……
憂鬱로 물드는 옛터에 가을이여
그로써만 가을을 創造하는가

아니다
貧相한 江山에 가을이여
헐어진 城壁 陽地 衰殘한 廢家

거처 없는 거지들에 見搾한 집터에도
貧困인 양 秋色은 짙고 있다.(6~7쪽)

「폐허」라는 시의 전문으로, 퇴락(頹落)한 옛 성터와 철새가 떠난 가을의 상념이 잘 형상화된 작품이다. 20대 초반이던 1937년 11월 5일에 썼다고 메모되어 있는 이 작품은 추후 개고(改稿)하여 시집 『이단의 요화』에 수록되었다. 『신생』에 발표된 최길두 작품 중에는 「폐허」만 유일하게 그의 시집에 수록되었는데, 이를 보면 그가 펴 애착을 지녔던 작품으로 보인다.

이영복(1921~)은 애월읍 금성리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는 평양 숭실중학교와 평양신학교를 나와 애월면서기를 지냈으며 목사였다. 그는 아버지가 상해임시정부 독립기금 지원협의로 연루되어 고난을 겪자 그 여파로 보통학교까지밖에 수학하지 못한다. 그는 그것에 불만을 품고 가을

하여 1937년 평양으로 간다. 평양에서 그는 서점점원을 하며 각종 문학 서적을 접하게 되는데, 주로 일본어로 된 것이었고 『사회공론』·『조광』 등 우리 잡지도 가끔씩 보았다고 한다. 1939년 귀향하여 『아이 생활』·『농민 생활』이라는 한글잡지 지국을 운영하다가, 다음해 3월 일본으로 건너간다. 동경외국어전문학교 산하의 제1외국어학교에 입학했으나 1년 3개월만에 중퇴하고 노동판에 뛰어든다. 주로 일본 문인들과 교류하며 문학활동을 하던 그는 '일본청년문학자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청년작가(靑年作家)』 1942년 7월호(제1권 제6호)에 일본어로 「밭당님(畑堂任)」을 발표한다.²⁷⁾ 학업중단협화회 가입거부 등 이유로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던 그는 1943년 8월 대판에서 체포되어 강제 귀국한다. 그리고 해방이 되자 최길두 등을 만나 『신생』 발간을 주도한다.

『신생』에 발표된 이영복의 작품은 「추억(追憶)」, 「회루(悔淚)」, 「우울(憂鬱)」 등 3편의 시와 「야로」라는 소설이다. 다음은 「추억」의 1연이다.

두 개—
 높고 얇은 산이 있었다
 그리고 한줄기 길이 멀리 뻗어 있었다
 전봇대가 군데군데 길과 병립하였었고 밭과 밭 사이 한 획의 밭담을 넘고
 서 있었다
 길은 어디로가 길이었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림자조차 없었다
 가다가 솔잎을 한아름 짙어진 할멈이 꼬부랑 막대를 짚고 터벅터벅 걸어
 오곤 하였었다
 그리고 동지선달 들판의 새와 같은 빛깔을 한 개가 얼넉절넉 눈에 띄었
 었다

27) 이때의 필명은 모리야마 잇페이(森山一兵)였다. 「밭당님」의 공간적 배경은 한경면 고산인데, 그곳은 이영복의 처가가 있는 곳이다. 일본 군국주의 찬양, 고무하는 내용이 주로 발표되던 당시에 그는 차라리 순문학을 쓰는 게 낫다고 여겼다. 그래서 향수에 젖어 있던 그는 고향의 풍취를 소개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쓴 것이 「밭당님」이었다. 고향을 그리며 쓴 소설이기에 당시 제주인의 삶의 일부가 묘사되고 있으며 제주인의 정서가 잘 반영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실제 당시 고산에는 당산봉쪽 길가에 '밭당'이 있었고 가끔 할머니들이 드나드는 걸 본 적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길가에는 해묵은 풀이 덩상하였었고
등고싶은 쇠테우리의 쇠바람은 영- 들지를 못하였었다
(하략)(51~52쪽)

‘발담’, ‘쇠테우리’ 등을 보면 한적한 제주의 풍경이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영복은 소설에 더 문학적 재능을 보였던 인물이어서 그런 지 위의 시에는 ‘그리고’라는 접속부사를 자주 사용하는 등 세련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 보인다. 그러나 그가 작품마다 제주적 요소를 소재로 쓰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어로 발표된 소설 「발담님」도 그렇거니와 인용한 시 「추억」에서도 그렇다. 「야로」라는 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경향을 보인다.

「야로」는 제주읍 성내에서 출발한 한림행 만원버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버스가 관덕정 옆에서 출발할 때와 정뜨르 비행장을 지날 때에는 미군의 모습도 형상화된다. 제주방언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²⁸⁾ 「편집 소식」에 “「야로」는 우리 고향에서 낯이 보는 현실의 사회소설로 가장 대표적인 것”(62쪽)이라고 언급되었듯이, 해방 직후 제주의 사회상과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소설에는 ‘관덕정→서문다리→정뜨르비행장→하귀→고내봉→애월’까지의 여정이 나오는데, 애월에서 손님을 내려준 버스는 동산을 넘다가 그만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트럭과 충돌하고 만다. 사고가 나자 완장을 찬 조선사람이 일본말로 운전사를 꾸짖으며 행세한다. 그것을 본 한 청년이 해방된 ‘조국에서도 일본말로 지껄이는 데 대해 반감을 갖는다.

28) 그 한 부분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눈앞에 알농알농 오라가락하는 반지기곤밥에다 듬상한 멜국에 갈치 구운놈 한 토막이 버려져있을 오늘 저녁밥상을 연상하니 벌써부터 침이 들락들락 목구멍을 내리며 식욕을 재촉하는 것이었다. 그래 골넨 소리로
“헌저들 내립서보저 무싱길 꾸물꾸물 허염수가?”
하고 야단하였다.(34쪽)

버스 운전수는 아무 말대꾸도 없이 고양이 옆의 쥐 모양으로 순종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괴상스러운 현상임은 그 양반은 연상 일본어로 말하는 것이었다. 설혹 그 사람이 일본인이었으면 모르거니와 순전한 우리 조선사람이었을진대. (...) 그 사람은 '나야 일본황국의 진정한 신민(臣民)이지. 나의 일본말을 좀 들어봐라' 는 듯이 연방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었다.(37쪽)

친일잔재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이 형상화되고 있다. 작가의 분신으로 인식되는, 사고 버스에 탔던 청년은 일방적으로 욕먹는 운전사를 거들고 나서며 서로 실수한 게 아니냐고 항의해 본다. 그러자 그들은 계속 일본말로만 호통을 쳐대면서 감히 누구에게 덤비는 것이냐고 한다. 안하무인격의 그들은 검사 일행이었던 것이다.

청년의 가슴속에는 그 무엇이 주먹들같이 뭉쳐 오르는 괴로운 감정이어서 무어라 말하려고 가슴이 막히는 것이었다. (...) 대포 소리와 같은 원분(怨恨)을 폭발하고 싶었으나 괴로운 그의 이성은 역시 허락하지를 않았다. 그는 '검사, 검사' 하고 복부에서 치밀어 오르는 말귀를 들 썩듯 입술을 깨무는 것이었다. (...) 청년은 아무 말 없이 묵묵한 걸음으로 그 곳을 떠나 어둠에 사라지고 말았다.(39쪽)

결국 버스에 탔던 사람들은 목적지로 걸어서 간다. 누구 하나 원망하는 사람 없이 약속이나 한 듯이 묵묵히 길을 나서는 것이었다. 소설은 여기서 끝나지만, 실은 많은 부분이 삭제된 채 수록된 것이라고 한다. 열악한 인쇄 사정 때문에 작품 후반부의 대부분이 잘려나간 것이다. 당초 작품에서는 애월의 사고 지점에서 내려 한림까지 1시간 정도 밤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개된다. 밤길을 걷는 이들은 시국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해방 직후 서울과 제주지역에서 전개되는 혼탁한 정세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일본말로만 지껄이던 검사 일행이 트럭 타고 어느곳에 다녀오는 지에 관한 진술도 있었는데, 그들은 일제 때 공출을 심하게 함으로써 원성을 샀던 이장이 피살된 사건을 조사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²⁹⁾ 이렇게

볼 때 「야로」에서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는 작품 내용들은 상당 부분 삭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면 관계로 삭제되고 말았으니, 참으로 아쉬운 일이었다.

김병헌은 1937년 광주사범을 나온 후 전라남도 진도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4·3 때는 『제주신보』 전무로 있었고, 1959년 문충 제주도지부장을 역임했다. 다음은 그의 시 「바다의 사색」 전문이다.

푸른 바다
너무나 깨끗한 모래바다
꿈나라 천사 같은 갈매기의 한 무리
대합조개의 天真한 本能을 깨트리지 말아
꿈나라 갈매기야

人魚같이
自由로운 海女
서늘한 바가지에
情다운 입맞춤을 하나
괴로운 現實을 잊을 수 없이 疲困한 늙은 海女

眞實히 잊지 못할
너와 나의 純情한 맺힘
그 '피리오트'는 나의 몸의 細胞 그리워라 過去

침 뱉으며 固執하는 現實을
悟性이라 너는 말하니
어린 時節
침 말기같이 아파 괴롭다 人生이란
過去는 꿈
現實은 虛無(49~50쪽)

“사방 바다로 싸여있는 우리 향토에서 유일무이한 시제로서 그 속에 노련한 능필(能筆)로 우인을 노래하고 그 속에 인생현실의 과거와 허무·무정을 표현하였다”며 “실로 예술적 사색을 구했다 할 수 있는 시”(62쪽)라고 「편집 소식」에 소개된 작품이다. 화자는 바닷가에서 갈매기와 물질하는 해녀들을 보며 사색에 잠기고 있다. ‘침 뺄으며 고집하는 현실’, ‘침 맞기같이 아파 괴롭다’는 표현이 흥미롭다. 이 시에서 ‘푸른 바다’, ‘인어같이 자유로운 해녀’, ‘피곤한 늙은 해녀’ 등이 제주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런 것들은 바닷가에서 보이는 한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제주인의 정서가 짙게 배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밖에 시 작품으로 김영의 「파선」, 김필규의 「전원에서」, 김덕양의 「만가」 등이 있으나 관심을 두어 볼 만한 작품들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5. 『신생』의 문학사적 의의

앞에서 살펴본 사항들을 통해 드러나듯이, 해방 직후의 문학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신생』은 당시 제주문학의 활동을 반영한 중요한 문헌이 아닐 수 없다. 문학사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신생』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짚어낼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도 『신생』은 해방 직후 제주지역의 문학적 역량을 결집한 최초의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자못 크다. 아직 사회가 안정되지 못한 시대 상황 속에서 문학에 뜻을 두었던 제주지역의 지식인들이 한데 모여 잡지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경이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제주도 최초의 잡지인 『신생』이 비록 문학전문 동인지는 아니었지만, 편집진이 주로 문학 관련자였고 잡지 내용의 절반을 문학작품으로 채웠다는 점에서 볼 때 의미 있는 문학적 성과물임에 충분한 것이다. 1952년 5월,

한국전쟁을 피해 제주도에 와 있던 계몽주의 주도로 『신문화(新文化)』³⁰⁾가 제주도에서 창간되었는데, 만약 『신생』이 없었더라면 제주도에서 어느 정도의 모습을 갖춘 문학적 결과물의 시작은 타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양상이 되었을 것이다.

문학을 지역문화적인 차원에서 보고자 하면서, 일제강점기 지역문학의 성과를 담아내었다는 면에서도 나름대로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물론 아직 본격적인 차원의 것은 아니다). 작고한 김이옥을 향토시인으로 규정하며 그의 작품 세계를 소개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일제강점기 제주 출신의 문학활동이 산발적으로 전개되었지만 그것들은 그다지 주목받지도 못하였으며 지역성의 차원에서 평가되었던 적도 없었다. 그런데 『신생』이 김이옥의 유고작들을 소개하는 지면을 통해 그를 향토시인으로 명명하면서 작품성을 높이 산 점은 제주문학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이옥을 소개했다는 사실 자체부터 일제강점기 제주인들의 문학을 계승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도 하다.

4·3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제주문학의 발전에도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신생』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영복·최길두 등은 『신생』에 참여한 이후 4·3의 소용돌이를 겪으면서 그 여파로 인해 문학 활동을 중단한다.³¹⁾ 이는 제주문단에서 볼 때 커다란 손실이 아닐

30) 『신문화』는 1952년 5월 1일에 창간호, 9월 20일에 제2호, 1953년 1월 1일에 제3호가 발간되었다. 『신문화』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김동윤, 「한국전쟁기의 제주문학」, 『경인전쟁과 한국의 지역문학』(경남지역문학회, 2000), 87~114쪽을 참조할 것(「한국전쟁기의 제주문학」은 일부 수정·보완하여 『제주작가』 제5호(실천문학사, 2000), 326~353쪽에 「한국전쟁기 제주문단과 문학」이라는 제목으로 재수록하였음).

31) 이영복은 무장대 지도자 이덕구와 비슷한 이름을 가졌다는 이유로 친척이 아니냐고 추궁 받은 일이 있어 개명했다고 한다. 원래 이름인 '영구'를 '영복'으로 바꾼 이유가 4·3 때문이라는 것이다(이영복의 증언.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의 「『청년작가』와 제주도 출신의 작가」, 『운동주와 한국문학』(소명출판, 2001), 316쪽에도 이영복이 개명한 사정이 나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문학 활동을 의욕적으로 펼쳐나가는 일은 지난했을 것이기에, 결국 문학 활동을 중단하고 말았던 것이다.

수 없었다. 1950년대의 제주문단은 이들의 활동이 이어진 것이 아니라 계용묵 등 피난문인들의 주도로 이루어졌기에 해방 직후 문학과 거의 연계성을 갖지 못했다. 4·3의 충격은 제주 출신 문인들의 문학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결국 제주문학의 발전에도 찬물을 끼얹었음이 『신생』을 둘러싼 상황들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다.

이처럼 『신생』은 제주문학의 흐름에서 중요한 문학사적 의의를 점하고 있는 성과물이었다. 당시 다른 지역에서도 『신생』과 같은 성격의 잡지들이 간행되지 않았을까 짐작되는데, 그런 문헌들과 함께 『신생』은 지역문학사 서술과 한국문학사 보완의 요긴한 근거가 될 것이다.

6. 맺음말

지금까지 해방 직후의 제주문학의 전반적인 상황과 『신생』에 나타난 당시 제주 사회의 관심사를 먼저 살핀 후,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신생』의 성격과 그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 고찰하여 보았다. 논외한 바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 직후 제주도에서는 종합잡지 『신생』을 비롯하여 애월면 인민위원회와 청년동맹의 『신광』, 제주도 경찰 기관지 『경성』 등의 간행물들이 나왔고, 이런 간행물들을 중심으로 문학 활동이 전개되었으며, 타지에서의 개인적인 성과물도 있었다.

둘째, 월간 혹은 격월간을 표방했던 『신생』은 사실상 창간호가 종간호로 되고 말았는데, 그 내용에서 시사적인 것들은 새 조국 건설과 완전독립 쟁취에 대한 기대와 과제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문화예술단체들의 광고도 게재되어 있으나 그 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셋째, 『신생』에 실린 문학 작품으로는 잡지 간행의 주역이었던 이영복의 소설, 최길두의 시, 그리고 최길두에 의해 소개된 김이옥의 작품 세계

에 관한 기획 등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영복의 소설 「야로」는 해방 직후 제주사회의 모습을 잘 형상화한 작품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넷째, 문학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신생』은 해방 직후 제주지역의 문학적 역량을 결집시키고, 문학의 지역성에 주목하면서 일제강점기 제주문학을 계승했다는 의미와 함께, 4·3이 문학발전에도 큰 장애물로 작용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지역문학사 서술의 요긴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신생』에 관한 사항들을 검토하였지만 이것으로 해방 직후 제주문학의 전모가 드러난 것은 아니다. 해방 직후 제주지역에서 이루어진 문학 활동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역시 4·3의 여파가 크게 작용한다고 본다. 당사자는 물론 증언해 줄만한 인물들이 많이 희생되었고, 혼란의 와중에서 유실된 자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역사 연구 등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당시 문학적 상황을 재조명해 나갈 때, 해방 직후 제주문학의 온전한 모습이 좀더 뚜렷하게 그려질 것이다.